



박광태 광주시장이 22일 열린 U대회 시민운동추진협의회 창립총회에서 "실패하면 돌아오지 말고 죽을 각오로 하라고 했는데..."라고 말하다가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의원직 사퇴 '死即生 카드' 될까

광주시장후보 강운태·이용섭 선택 주목 정동채·시민단체 등은 연일 사퇴 압박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후보가 강운태·이용섭 국회의원,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장관 등 3명으로 압축된 가운데 강운태·이용섭 의원이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칠지 관심이 쏠린다. 경선 과정에서 의원직 사퇴는 '사즉생(死即生)' 즉, 과감하게 희생함으로써 회생을 도모하는 필승 카드가 될 수 있다. 누가 먼저 이 카드를 꺼내느냐에 따라 민심이 움직이면서 경선 판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원직 사퇴는 시민배심원들의 결정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배수진을 치고 지역발전에 전념한다는 깔끔한 인상을 주면서 후보의 진정성을 돋보이게 할 수 있다. 이용섭 의원의 주변에선 의원직 사퇴를 검토했다는 흔적들이 엿보인다. 이 의원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손학규 전 대표의 사퇴 권고가 그것이다. 손 전 대표는 여러 차례 이 의원에게 "사즉생의 심정으로 버려야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 의원은 아직까지 사퇴에 부정적이다. 강 의원도 마찬가지다. 경선 직전에 깜짝 카드로 부상할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의원직 사퇴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광주뿐 아니라 전남과 수도권 등의 광역단체장을 준비중인 다수의 의원이 사퇴하면 국회에서 당력의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중앙당 차원에서 의원직

사퇴를 말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도 의원직 사퇴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사퇴 후 경선이나 본선에서 탈락할 경우 휴식기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법이 개정돼 의원직을 사퇴한 후보자는 '해당 지역구 보궐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상대후보나 시민단체의 '의원직 사퇴' 압박은 날로 거세지고 있다. 정동채 전 장관은 22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두 의원을 신랄하게 비난했다. 정 전 장관은 "국회의원직을 이용한 선거를 하느라 불법선거 사제가 적발되는 것"이라며 "의원직을 사퇴하고 후보로서 정당하게 겨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두 의원은 국회의원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 1월 국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반드시 되살리겠다고 한 분들이 2월 한 달 동안 예산투쟁은 커녕, 광주에서 교묘

한 불법선거를 저질렀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는 또 "시장이 안되면 국회의원을 그대로 하겠다는 생각인데, 당당하게 의원직을 사퇴하고 시민 앞에서 떳떳하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남일 진보신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도 "민주당 경선이 3파전으로 압축된 만큼 강운태·이용섭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두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 채 광주시장 선거운동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광주시에 대한 기본 예의가 아니고, 책임정치의 기본이 아니다"면서 "두 후보는 의원직을 사퇴하든지, 광주시장 후보직을 사퇴하는지 양자택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인 '광주 희망과 대안'은 지난 1월 28일 "국회의원의 지위를 향유하면서 광주시장에 도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위"라며 이들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당원명부 불법 확보 아니냐" "당원들 얘기 듣고 검토 건의"

전남지사 후보 경선 당원조작시비 2라운드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당원 직접투표(이하 체육관 경선)와 관련한 당원명부 조작 의혹 제기에 대해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 후보인 주승용 의원과 이석형 전 함평군수가 박 지사를 상대로 역공을 펼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주 의원은 이 전 군수는 전남 박 지사가 체육관 경선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당원명부 조작 의혹을 주장한 데 대해 22일 "당을 곤경에 빠뜨릴 수 있는 심각한 해당 행위로 목과할 수 없다"고 역공을 펼치고 나섰다. 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 지사가 지난 21일 중앙당에 제출한 건의문은 당원명부를 불법적으로 확보했음을 드러낸 자백서"라면서 "박 지사가 대의원 수가 빠졌다는 분석까지 했다는 것은 현재의 당원명부 뿐 아니라 과거의 명부까지 이미 확보하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당원의 신상까지 포함된 당원명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자료로 이는 당내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를 구성하는 법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전 군수도 "박 지사가 정세균 대표와 최고위원회에 보낸 건의문이 당원과 중앙당에 대한 불신과 도덕적 편파로 일관하면서 도민과 당원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았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박 지사가 건의문을 통해 지역당원, 도당 당원, 대의원 명부가 조직적으로 유출된 사실을 자인했다"면서 "당원명부를 부당하게 유출한 지역위원회 등의 실명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박 지사 측은 "당원 명부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짧게 답했다. 박 지사 측은 "당원명부를 갖고 의혹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일선 시·군을 순회하면서 만난 당원들이 '나는 지역

위원회 당원인데도 당원명부에는 빠져 있다'는 푸념을 듣고 당원명부 조작 의혹을 제기했던 것"이라며 "말 그대로 중앙당이 어떤 당원 명부로 체육관 경선을 할지 명확하게 밝히고, 당원 명부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건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지사 측은 이어 "체육관 경선은 예전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경선에서 봐왔듯이 동원경선 등 폐해가 예상되기에 중앙당이 최소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한 뒤 체육관 경선을 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박 지사는 전남 중앙당에 보낸 '전남도당 당원 조작에 대한 조사 및 지사 경선 방법에 대한 건의문'에서 "지역별 당원을 점검하던 중 일선 시·군 지역위원회와 전남도당이 가진 당원명부가 다르게 돼 있는 등 당원 명부가 조작된 의혹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한나라 공천신청 광주시장후보 정용화 전남지사는 3명 도전

한나라당이 22일 오후 공천 신청을 마감한 가운데 16개 시·도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는 주자들의 면면이 드러나고 있다. 우선 광주시장의 경우 정용화(45) 전 청와대 연설기록관이 유일하게 신청서를 내 당내 경선 없이 한나라당 후보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남지사 후보로는 김대식(47)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과 김문일(62) 담양·곡성·구례 당협위원장, 정 훈(61) 국민통합운동본부 총재 등 3명이 도전장을 내 3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에 따라 민주당 텃밭인 전남에서 한나라당 후보 3명이 이례적으로 공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지사 출마를 고려했던 배종덕 한나라당 목포당협위원장은 오는 7월 전남대회에서 최고위원 출마를 위해 도지사 불출마를 선언하고 접수를 하지 않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시장의 눈물

U대회 유치과정 회상하다 울컥 불출마 심경과 겹쳐 복받친 듯

박광태 광주시장이 울었다. 지난 18일 3선 불출마 선언 뒤 첫 외부 공식행사인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이하 U대회)' 시민운동추진협의회 창립총회에서다. 박시장은 22일 오후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라마다 호텔에서 열린 U대회 시민운동협의회 창립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는 10분 동안 세번이나 마이크에서 입을 떼고 눈물을 흘렸다. 이날 박 시장은 U대회 유치과정을 설명하며 "김윤석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에게 못할 일을 시켰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이어 "함께 국제대

학스포츠포럼(FISU) 집행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독일 프랑크푸르트시에 갔다가 김윤석이란 그곳에 남겨둔 채 돌아오는 비행기에 올랐다. 실패하면 돌아오지 말고 거기서 죽을 각오로 하라고 했는데..."라며 말을 잊지 못하고 얼굴을 가린 채 눈물을 쏟아냈다. 박 시장은 이날 창립대회 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사무총장과 고생한 일은 쉽게 잊을 수 없는 일로, 김 사무총장을 보니 그 어려웠던 때가 생각나 잠시 울컥했다"며 "광주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U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시장은 3선 불출마 기자회견 때 "지구를 8바퀴나 돌아다니면서 목숨을 걸고 뛰었던 U대회 유치활동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추억과 보람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광주에 첫 국제대회를 유치한 시장으로서, 앞으로 5년 뒤 개최될 U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눈물 속에 담겨 있었다는 것이다. 3선 도전을 접음에 따라 U대회를 마무리하지 못하게 된 착잡한 심경도 작용했을 듯하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